



10월 12일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가끔 이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먼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어요. 연못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병든지 오래 되었다는 걸 아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는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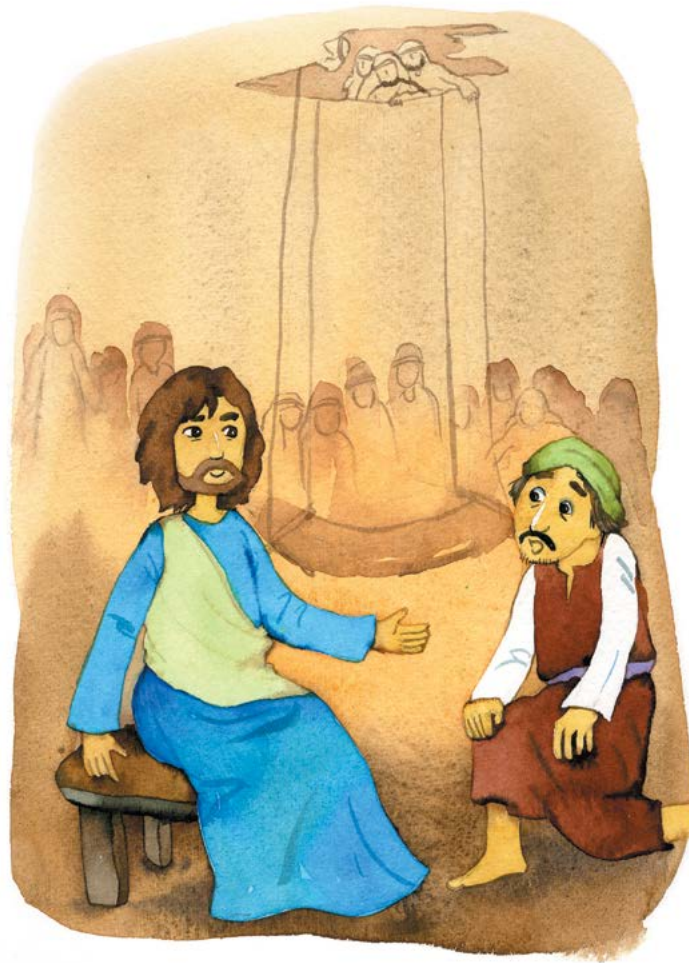
“천사가 내려올 때 아무도

저를 연못으로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어느 마을에 중풍병에 걸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 사람을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그 밑으로 침상을 내려 보냈어요.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 병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 갔어요.

생각하는 아이

오늘은 교회 학교에 가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같은 반 친구 찬우가 자꾸 놀려요. 오늘도 찬우는 기분 나쁜 말로 남우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선생님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속상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야기 해서 치료를 받아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우는 집에 와서 하나님과 기도로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남우는 하나님께 기도로 속상한 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우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속상한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하니깐 점점 편해졌어요.



플칠하는
곳



플칠하는
곳

예수님을 만나요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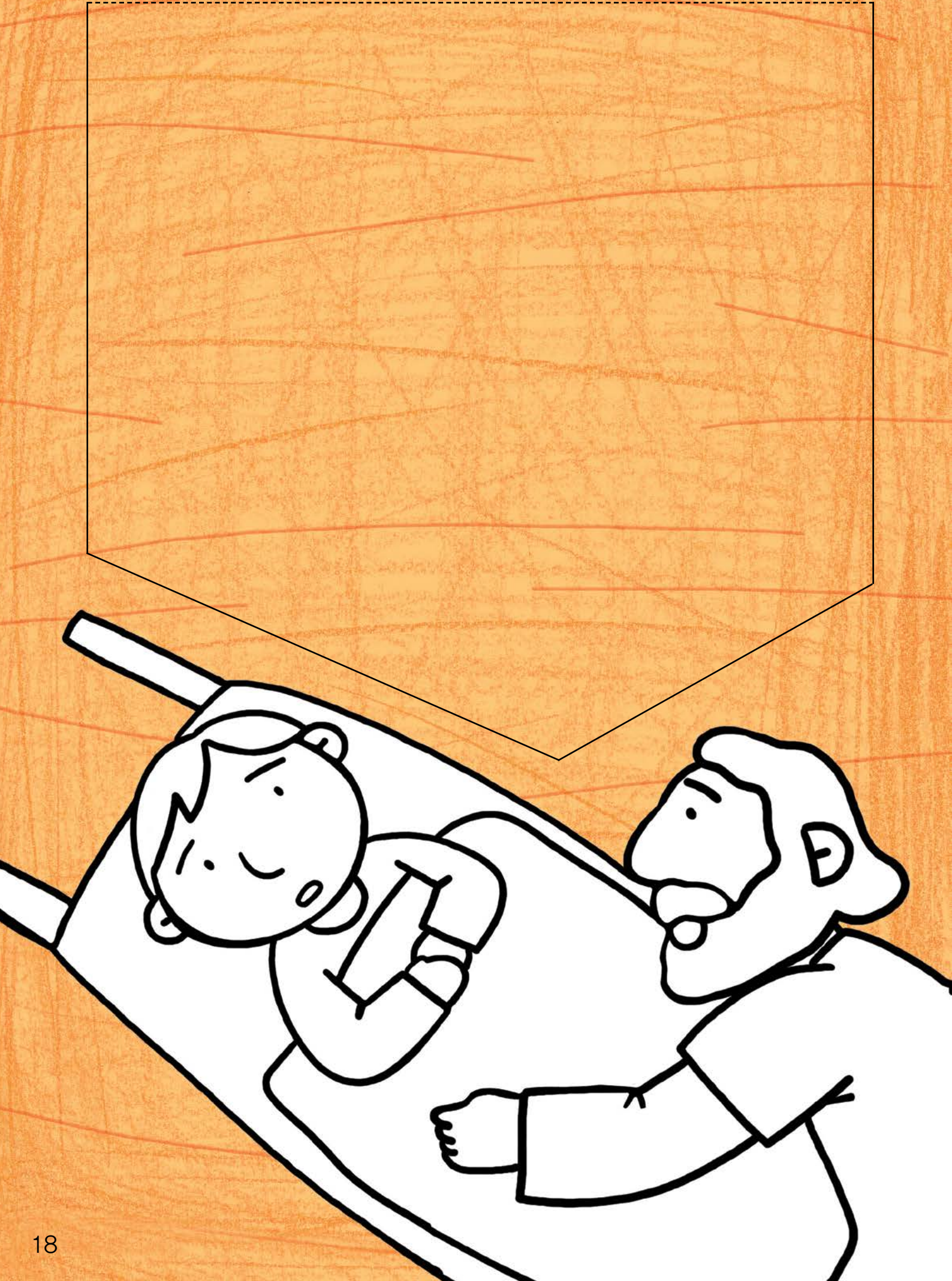
- ① 16, 18쪽 그림을 색칠하세요.
- ② 18쪽의 실선을 칼로 오리세요.
- ③ 16쪽과 17쪽을 맞대고 풀로 붙이세요.
- ④ 18쪽의 점선 대로 접어서 올리세요.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고 계세요.

자 르 는 선 _____

접 는 선 - - - - -

풀칠하는
곳

풀칠하는
곳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